

현대 중국어 부정부사 교수 학습 방안 고찰

— ‘不’와 ‘沒’를 중심으로

朴惠淑*

〈목 차〉

- I. 序言
 - II. ‘不’와 ‘沒’의 부정 의미
 - 1. ‘不’의 부정 의미
 - 2. ‘沒’의 부정 의미
 - III. ‘不’와 ‘沒’의 기존 교학 기준
 - 1. 시제의 차이
 - 2. 주관 의지와 객관적 서술
 - IV. ‘不’와 ‘沒’의 교수 학습 방안
 - 1. 학습자 오류 예측
 - 2. 교학 목적과 방법
 - 3. 교학 단계와 내용
 - V. 結語
-

I. 序言

‘不’와 ‘沒’는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부정 부사이다. 사용 빈도가 높은 만큼 ‘不’와 ‘沒’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연구 결과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어 교학¹⁾에서 어려운 어법 항목 중의 하나이며, 학습자의 사용상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습자가 부정 부사 선택에서 오류를 범하는 원인을 찾아보면 그 중요성에 비해 ‘不’와 ‘沒’의 사용상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成均館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1) 교학은 외국어 교육에서 교수·학습이라 칭하지만 본고는 제목 이외에 모두 교학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부정 부사 ‘不’와 ‘沒’의 용법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는 크게 세 가지 견해로 분류된다. 첫째, 시제의 차이로 보는 견해이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 회화 교재는 시제를 기준으로 ‘不’와 ‘沒’를 구분하고 있다. 시제의 차이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은 蔣琪·金立鑫²⁾의 논문에서 비롯한다. ‘不’는 ‘현재와 미래’를 부정하고 ‘沒’는 ‘과거’를 부정한다고 보아서, 두 부정 부사의 용법 차이를 시제에 두고 있다. 둘째, ‘不’는 주관적 부정에 사용되고, ‘沒’는 객관적 서술에 쓰인다고 보는 견해이다. 朱德熙(1982)는 ‘不’는 화자의 주관적 바람을 부정하고, ‘沒’는 객관적 상황을 서술하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보았으며, ‘不’를 유일한 부정부사로 보고 주관 의지의 부정, 습관과 가설의 부정에 사용되고, ‘沒’는 동사의 범주에 포함시켜 동작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동작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는 앞의 두 가지 견해를 종합한 것으로 呂叔湘(1980)에 의하면 ‘沒’는 객관적인 서술에 쓰이며 ‘과거와 현재’만을 부정하고 ‘미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不’는 주관적 바람을 나타내며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부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不’는 모든 조동사 앞에 올 수 있지만, ‘沒’는 ‘能, 能够, 要, 肯, 敢’ 등 몇몇 조동사 앞에만 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劉月華(2005)도 ‘不’는 판단, 바람, 사실, 성질을 부정하지만 ‘沒’는 동작 행위의 발생 혹은 상태의 실현을 부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不’는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쓰일 수 있으나 ‘沒’는 과거와 현재 시간에만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로 대표되는 ‘不’와 ‘沒’의 용법 차이에 대한 견해는 실제 언어 상황에서 모두 적용되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기초와 초급 중국어 수업에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교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초중국어 수업에서는 시제를 기준으로 두 용법을 구분하고 있다. 기초중국어 단계에서 적절한 교학 기준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초급, 중급 단계의 문장에 출현하는 ‘不’와 ‘沒’는 시제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不’와 ‘沒’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교학 기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어법 과목에서 부정 부사 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교학하고 있지만, 어법 과목은 이론 수업으로 이론 어법의 시각으로 교학을 진행하고 있다. 본고는 이론 어법 각 도에서 ‘不’와 ‘沒’의 용법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 수업에

2) 1977년 《中國語文》 3기에 발표된 논문으로 본고는 白堇(2000)의 논문에서 재인용하였다.

적용될 수 있는 교학 어법의 시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不'와 '沒'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不'와 '沒'의 의미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의미 특징 분석을 통해 교학 내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不'와 '沒'의 용법 차이에 대한 기존의 교학 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교학 기준 검토를 통해 학습자의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 학습자 오류를 통해서 교학 내용을 구체화하고 교학 방법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두 부정 부사의 교실 교학 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Ⅱ. '不'와 '沒'의 부정 의미

부정 부사와 술어의 결합관계를 통해 '不'와 '沒'가 가지는 부정의미를 알 수 있다. 술어가 '不'와 결합하는 경우와 '沒'와 결합하는 경우, 의미 특징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 '不'의 부정 의미

'不'의 부정 의미는 술어의 성질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不'가 술어와 결합할 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不 + 형용사

다음은 '不'가 형용사를 부정하는 예로 다음과 같다.

- (1) 他身體不好, 經常生病。(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 늘 병에 걸린다)
- (2) 他看上去一點不老。(그는 조금도 늙어 보이지 않는다)

(1)의 '不好'는 지금까지의 건강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서 '不'가 부정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부정하는 것으로 정태 부정이라 할 수 있다. (2)의 '不老'는

어떤 성질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정태적이다. 이와 같이 ‘不’를 사용하여 형용사를 부정하면 ‘성질’과 ‘상태’를 부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不 + 정태동사

다음은 ‘不’가 정태동사를 부정한 예이다.

- (3) 他不是北京人。(그는 북경사람이 아니다)
- (4) 三乘五不等於十六。(삼 곱하기 오는 십육이 아니다)
- (5) 我不喜歡他。(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 (6) 我不知道你的名字。(나는 당신 이름을 모른다)

(3)의 ‘是’와 (4)의 ‘等於’는 전형적으로 ‘不’로 부정되고 ‘沒’로 부정할 수 없는 동사이다. (3)의 ‘북경 사람’과 (4)의 ‘삼 곱하기 오는 십육’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판단과 인식으로 사물의 속성 또는 관계의 부정을 나타낸다. (5), (6)은 ‘不’가 심리동사와 결합하여 심리 상태를 부정한 경우이다. (5)는 ‘좋아하지 않는’ 심리 상태이며, (6)은 ‘모르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3)~(6)의 ‘不’가 부정하는 것은 정태상태이지 동작의 발생이나 상태의 출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沒’를 사용할 수 없다.

3) 不 + 동태동사

다음은 ‘不’가 동태동사를 부정하는 예이다.

- (7) 我不上班。(나는 출근하지 않는다)
- (8) 明天不下雪。(내일 눈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 (9) 他不吸煙, 也不喝酒。(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다)
- (10) 他星期天不去圖書館。(그는 일요일에 도서관에 가지 않는다)

(7)의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을 것을 나

타내는 동시에 화자가 “출근하지 않겠다”는 행위 주체의 주관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8)은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눈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는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으나, (7)의 경우처럼 주관의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장 주어가 생명이 없는 경우에 ‘不’는 주관의지의 부정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자연계 규율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9)와 (10)은 일상적이거나 ‘습관’ 의미를 나타내는 예에 해당된다. 그러나 (9)와 (10)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다”와 “도서관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실현 의미와 행위주체가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주관 의지를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둘째, 행위주체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다”와 “일요일에 도서관에 가지 않는다”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不’와 동태동사의 결합은 형용사와 정태동사의 경우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태동사는 반드시 ‘不’만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沒’로 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沒’와 결합하는 경우 ‘沒’의 부정 의미와 ‘不’의 부정 의미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상은 술어와 ‘不’의 결합관계 분석을 통해서 ‘不’는 속성 동사, 관계 동사, 심리 동사를 포함하는 정태동사, 형용사, 동태동사와 자유롭게 결합하여 부정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용사와 정태동사의 공통점은 정태적이고 안정적이며 시간성이 없기 때문에 불변의 성질 또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不’로 부정된 후에 성질 또는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不’가 동태동사를 부정하게 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는 ‘미실현’ 의미로 주관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 객관 사실을 설명할 수도 있다. 둘째 의미는 ‘습관’ 또는 ‘규율’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주어가 생명체면 ‘습관’ 의미를 나타내고, 무생명체이면 ‘규율’을 나타낸다. 두 경우 모두 영원불변 또는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일종의 ‘정태적 상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한 ‘不’와 술어의 결합관계와 의미 특징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1〉

형 용 사		不	의 미 특 징
동 태 동 사		+	[+성질] [+상태]
	심리동사	+	[-실현] [+의지] [+습관] [+규율]
	속성동사	+	[+상태]
	관계동사	+	[+속성]
	정태동사 ³⁾	+	[+판단]
		+	[+상태]

이상의 분석을 통해 ‘不’의 부정 의미를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미실현을 나타낸다. 둘째, 주어의 능동적 부정으로 주어의 의지가 들어 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셋째, 화자의 관찰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상식으로 모종의 객관 사실에 대해 주관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넷째는 객관적 규율과 자연현상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다섯째, 상태를 부정하는 경우이다. ‘不’의 다섯 가지 의미는 각각 개별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두 가지 의미 이상을 내포할 수 있다.

2. ‘沒’의 부정의미

‘沒’는 동작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사건이나 상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점에 있어서 이견이 존재하지 않지만, 시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중국어 회화 교재와 어법서에서는 일반적으로 ‘沒’는 과거를 부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숙상(1980)과 유월화(2005)에 의하면 ‘沒’는 과거와 현재에만 쓰이고, 미래를 나타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음은 ‘沒’와 술어의 결합관계를 통해 ‘沒’의 구체적인 부정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沒 + ‘有’

다음은 ‘沒’가 동사 ‘有’ 앞에 오는 경우이다.

3) 심리동사, 속성동사, 관계동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태동사를 가리킨다.

(11) 我沒有汽車。(나는 자동차가 없다)

이 경우 ‘沒’는 동사 ‘有’ 앞에 와서 소유와 존재의 부정을 나타낸다. 엄밀하게 분류한다면 (11)의 ‘沒有’는 부정부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다⁴⁾. 그러나 기초 중국어 회화 교재에서 부정부사로 쓰이는 ‘沒’보다 소유와 존재를 부정하는 동사 ‘沒’가 먼저 출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언급되어야 한다.

2) 沒 + 동태동사

다음은 ‘沒’가 일반 동태동사 앞에 오는 경우이다.

(12) 我沒找到旅館。(나는 여관을 찾지 못했다)

(13) 前天他沒去。(그는 그제 가지 않았다)

‘沒’가 동태동사 앞에 오면 동작이 발생했다는 것을 부정한다. (12)와 (13)은 ‘找’와 ‘去’라는 동작이 발생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沒’가 동작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동작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표시하므로 과거 행위를 부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찾지 못했다”와 “가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동태동사 앞이나 뒤에 시태를 나타내는 표지가 오게 되는 경우 어떤 부정 부사를 사용할 것인가를 살펴보겠다.

(14) A: 他正在看電視嗎?(그는 TV를 보고 있습니까?)

B: 他沒有看電視, 在打電話呢。(TV를 보지 않고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15) 來中國以前, 我沒學過漢語。(중국에 오기 전에 나는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다)

(16) A: 門開着沒有?(문이 열려 있습니까?)

4) 주덕희(1982: 70)는 體詞性 성분 앞에 오는 ‘沒’와 ‘沒有’는 동사이고, 謂詞性 성분 앞에 오는 ‘沒’와 ‘沒有’는 부사로 보았으나, 실제적으로 동사와 부사로 쓰이는 ‘沒’와 ‘沒有’의 어법기능은 여러 면에서 일치한다고 보았다. (“沒”和“沒有”加在體詞性成分前邊, 表示不存在或不具有……加在謂詞性成分前邊表示動作沒有完成或是事情沒有發生……其實這兩種位置上的“沒”和“沒有”的語法功能在許多方面都是平行的。)

B: 門沒開着。(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14)는 진행을 나타내는 시태 표지 ‘正在’가 포함된 의문문이다. 여기에 대해 부정으로 답하게 되는 경우에는 ‘沒’로 부정하여 ‘TV를 보는’ 동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15)의 동사가 경험을 나타내는 표지 ‘過’를 동반하면 ‘배우다’는 동작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沒’로 부정한다. (16)의 지속을 나타내는 표지인 ‘着’이 동사 뒤에 오면 ‘열려있는’ 상태가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沒’로 부정한다. 위의 예문은 초급중국어 교재⁵⁾에 나오는 예로 시태가 포함된 문장은 일반적으로 ‘沒’로 부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沒 + 정태동사

다음은 ‘沒’가 정태동사 앞에 오는 경우이다.

- (17) *a. 他沒是北京人。
 b. 他不是北京人。(그는 북경사람이 아니다)
- (18) *a. 三乘五沒等於十六。
 b. 三乘五不等於十六。(삼 곱하기 오는 16이 아니다)
- (19) 我沒想到他能喝這麼多白酒。(그가 이렇게 백주를 많이 마실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 (20) 我從來沒想過。(나는 생각해 본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정태동사 중 관계와 속성을 나타내는 동사는 ‘沒’로 부정할 수 없다. (17)과 (18)의 경우처럼 ‘是’와 ‘等於’ 등은 ‘不’로만 부정되며 ‘沒’로 부정할 수 없다. 심리 동사도 일반적으로 (5)와 (6)처럼 ‘不’로 부정되지만 (19)처럼 심리동사 ‘想’이 결과보어 ‘到’를 동반하거나 (20)처럼 경험을 나타내는 조사 ‘過’를 동반하면 실현된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沒’로 부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심리 동사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不’로 부정하지만, 보어를 동반하면 ‘沒’로 부정해야 한다.

5) 《신공략중국어》 초급편의 진행, 경험, 지속에 대한 어법 내용이 포함된 단원에서 인용한 예문이다.

4) 沒 + 형용사

다음은 ‘沒’가 형용사 앞에 오는 경우이다.

(21) 他沒胖。(나는 뚱뚱하게 되지 않았다)

(22) 他不胖。(나는 뚱뚱하지 않다)

‘沒’가 형용사 앞에 오면 단순한 상태 부정이 아니라, 상태 변화가 발생한 것을 부정한다. (21)은 뚱뚱한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22)의 경우처럼 ‘不’로 부정되면 “뚱뚱하다”는 상태를 부정할 뿐, 상태 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沒’는 형용사와 결합하면 사물의 성질 상태가 점진적으로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러므로 ‘沒’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가 어떤 단계까지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용사 자체는 정태 상태를 나타내므로 ‘不’로 부정하면 정태 부정이 되지만, ‘沒’가 형용사 앞에 오면 ‘변화’의 의미가 부여되어 동태 상태를 부정하게 된다.

‘沒’와 술어의 결합관계 및 의미 특징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沒	부 정 의 미
형 용 사		+	[+상태 변화]
동 태 동 사		+	[+실현]
동 사	정 태	심리 동사	+(-) (제한된 조건 ⁶⁾ 에서 [+실현]
	동 태	속성 동사	-
	동 태	관계 동사	-
	동 태	정태 동사	-

〈표2〉

이상의 분석을 통해 ‘沒’의 부정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동작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 ‘沒’는 객관적 서술을 부정하는 부사로 쓰인다. 둘째는 상태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부정한

6) 심리동사가 보어 또는 경험을 나타내는 조사 ‘過’를 동반하면 ‘沒’로 부정한다.

다. 상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발전 서열관계에 있는 형용사를 동반해야 한다는 제한⁷⁾이 있다.

Ⅲ. ‘不’와 ‘沒’의 기존 교학 기준

‘不’와 ‘沒’의 용법 차이에 대한 기존의 교학 기준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시제를 기준으로 ‘不’와 ‘沒’를 교학 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기초중국어 회화 교재에서 시제가 ‘不’와 ‘沒’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不’로 부정하는 경우는 현재와 미래 행위를 부정하고, ‘沒’는 과거 행위를 부정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하나는 주관 의지나 바람을 부정하는 ‘不’와 객관적 서술을 부정하는 ‘沒’로 기준을 삼는 경우이다. 이외에도 앞의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본고는 시제의 차이, 주관 의지와 객관적 서술의 부정이라는 기준으로 ‘不’와 ‘沒’의 용법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이러한 기준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1. 시제의 차이

‘不’와 ‘沒’의 의미와 용법을 시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 즉 ‘不’는 현재와 미래를 부정하고 ‘沒’은 과거와 현재를 부정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일부 논문, 어법서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보편적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제로 구분하는 것은 蔣琪와 金立鑫의 논문에서 시작된다.

7) 代睿(2010)에 의하면 모든 형용사가 ‘沒’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는 다른 형용사와 논리적으로 발전 서열관계를 이루며, 발전 방향을 나타내는 형용사만이 ‘沒’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地瓜’는 ‘生’에서 ‘熟’으로 변하지, ‘熟’에서 ‘生’으로 변할 수 없으므로 “地瓜熟了”는 가능하지만 “*地瓜生了”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형용사 앞에 ‘沒’를 부가하여 상태 변화의 부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不’와 ‘沒’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전의 많은 논문에서 언급되었는데, 주로 시간 요소와 관련이 있다.…… ‘不’는 ‘현재와 미래’를 부정하고 ‘沒’는 과거를 부정한다. (‘關於‘不’和‘沒’的差別以往已有不少論文討論過, 主要和時間的因素有關。……‘不’否定的的是‘現在或以後’, 而‘沒’否定的的是‘以往’。)

蔣琪와 金立鑫에 의해 시제가 ‘不’와 ‘沒’의 용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설명되면서 이후 많은 회화교재가 이 견해를 수용했으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現代漢語八百詞》에서도 시제가 ‘不’와 ‘沒’의 차이를 설명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여숙상은 시간 외에도 다른 기준을 부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沒有’는 객관적인 서술에 사용되며 과거와 현재에만 사용되고 미래를 나타낼 수 없다. ‘不’는 주관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되며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沒有’用于客觀敘述, 限于指過去和現在, 不能持將來。‘不’用于主觀意願, 可指過去、現在和將來。)

여숙상은 객관적 서술과 주관 의지라는 개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不’와 ‘沒’의 용법 차이를 시제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3) a. 以前他沒有去過。(이전에 그는 가 본 적이 없다)
*b. 以前他不去過。
- (24) a. 今天他沒來。(오늘 그는 오지 않았다)
b. 今天他不來。(오늘 그는 오지 않는다)
- (25) a. 前天請他他沒來, 現在不請他他便不來了。(그제 그를 초청했는데도 오지 않았으니, 그를 초청하지도 않은 지금은 더욱 오지 않을 것이다)
b. 前天請他他不來, 現在不請他他便不來了。(그제 그를 초청했는데도 오지 않았으니, 그를 초청하지도 않은 지금은 더욱 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23)a는 ‘가다’라는 동작의 경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23)b는 동사 ‘去’가 경험을 나타내는 조사 ‘過’를 동반하고 있어 ‘不’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문이다. (23)의 경우는 시제를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이다. 그러나 (24)a는 ‘오지 않았다’라는 동작이 실현된 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沒’로

부정한 것이다. (24)b처럼 ‘不’로 부정하면 동작 자체를 부정하여 현재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24)a는 ‘今天’이라는 시간사가 있지만 동작 실현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沒’로 부정하고 있다. (25)a와 (25)b의 ‘不來’는 그의 의지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주관 의지를 부정한 경우이다. 그러나 ‘不’는 현재와 미래의 사건을 부정하고, ‘沒’는 과거와 현재 사건을 부정하는 데 사용된다는 기준으로 보면 (25)a의 ‘前天’과 ‘沒來’, ‘現在’와 ‘不來’는 시제와 용법설명이 부합되고 있지만, (25)b의 ‘前天’과 ‘不來’는 시제 기준으로 설명될 수 없지만 옳은 문장이 된다. 이 경우 시제 개념으로 ‘不’와 ‘沒’를 접근하면 올바른 설명이 될 수 없고, 주관 의지와 객관적 서술이라는 기준으로 설명하면 용법과 일치한다. 실제 언어 환경에서 시제를 기준으로 ‘不’와 ‘沒’를 설명할 수 없는 예는 적지 않은데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26) 明年這個時候你還沒有畢業呢。(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직 졸업하지 않았겠지)
 (27) 以前這個地方不窮。(이전에 이곳은 가난하지 않았다)⁸⁾

(26)은 미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인데 ‘不’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沒有’를 사용하여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⁹⁾ ‘沒’는 시제가 아닌 사건의 실현 여부가 사용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 예이다. (27)은 과거 사건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不’를 사용하여 부정하고 있다. 시제를 기준으로 본다면 (27)은 ‘以前’이라는 시간사로 인해 ‘沒’로 부정한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시간적으로 과거이지만 ‘窮’이라는 상태를 부정하기 때문에 ‘不’로 부정해야지 ‘沒’로 부정하면 비문이 된다. 위의 두 예문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과거와 미래라는 언어 환경이 ‘不’와 ‘沒有’의 절대적인 대립 특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찰스 N. 리·샌드라 톰슨(박정구의 역:

8) 예문(26), (27)은 찰스 N. 리·샌드라 톰슨(박정구의 역: 2001: 406)에서 재인용하였다.
 9) 참조하고자 하는 시간 이전에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沒’는 어떤 객관적 사실을 서술하고 있으며, ‘不’를 사용하여 부정하면 화자가 주관적으로 사건을 완성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것이다. 이 문장에서 ‘沒’로 부정한 경우와 ‘不’로 부정한 문장의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도 ‘沒’는 과거시간 부정사가 아니며 ‘不’와 ‘沒’의 차이점은 ‘완결’과 ‘미완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不’와 ‘沒’는 사용상 시제 차이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시제의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사용상 시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각각의 부정의미가 시간 선상에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白堊(2000)도 ‘不’와 ‘沒’가 각각 부정하는 동작이나 행위는 그 발생한 시간에 확실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시제 차이로 교학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작문이나 회화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不’는 현재와 미래 부정에 사용되며 ‘沒’는 과거 또는 현재 부정에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외부적인 현상일 뿐이며 ‘不’와 ‘沒’를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기초중국어 교학에서는 시제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있으나, 초급 단계부터는 시제를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교학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주관적 의지와 객관적 서술

‘不’와 ‘沒’를 구분하는 기준을 시간에 두지 않고 주관적 의지와 객관적 서술로 보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不’는 주어 또는 화자의 주관 의지를 부정하고 ‘沒’는 객관적 사실을 부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관 의지’란 문장의 주어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나 바람을 나타낸다. 혹은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와 인식을 주관적 의지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객관적 사실’이란 동작의 발생, 진행, 완성 또는 과거의 경험을 가리킨다. 주관의지와 객관적 서술로 구분하는 학자로는 주덕희를 들 수 있다. 주덕희는 ‘不’만을 진정한 부정부사로 보고, ‘沒’는 동사로 분류하였다. ‘不’에 대한 부정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不’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나 구 앞에 와서 ‘동의하지 않는다, 기꺼이 ~하려 하지 않는다, ~하고자 하지 않는다’와 같이 일반적으로 모종의 의지에 대한 부정을 표시한다 경우에 따라서 ‘不’는 습관이나 습벽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不”加在表示動作的動詞或詞組前邊往往是對某種意願的否定(不願意、不肯、不想) 有時表示沒有某種習慣或癖好。)

주덕희는 ‘不’가 주관 의지에 대한 부정으로 쓰이는 예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 (28) 我不跟他一塊去。(나는 그와 함께 가지 않는다)
 (29) 我不喝水。(나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
 (30) 飯沒煮熟。(밥이 익지 않았다)
 (31) 沒下雨。(비가 오지 않았다)

(28)은 “가고자 하지 않는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29)도 “마시지 않는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덕희는 ‘沒’에 대해서는 술어성 성분 앞에 ‘沒’가 오면 (30)처럼 “익지 않았다”와 (31)의 “오지 않았다”는 동작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동작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白堊(2000)은 ‘不’는 주관 의지를 부정하고 ‘沒’는 객관적 사실을 부정한다고 개괄하고, ‘주관 의지’란 문장의 주어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또한 발화자의 주관 평가와 인식을 포함한다고 보았으며, ‘객관적 사실’이란 동작의 발생, 진행, 완성 또는 과거의 경험을 가리킨다고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32) 他不去廣州。(그는 광주에 가지 않는다)
 (33) 這種無聊的問題不值得討論。(이런 문제는 토론할 가치가 없다)
 (34) 他沒去廣州。(그는 광주에 가지 않았다)
 (35) 他沒在看電視。(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지 않다)
 (36) 我還沒做完作業。(나는 아직 숙제를 다 하지 못했다)
 (37) 來北京以前安娜沒吃過北京烤鴨。(북경에 오기 전에 안나는 북경 오리 구이를 먹어본 적이 없다)

(32)는 동작자가 ‘광주에 가겠다’는 주관적인 의지를 부정한 것이며, (33)은 화자의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부정한 것이다. (34)는 ‘광주에 갔다’는 사건의 발생을 부정하며 (35)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다. (36)은 ‘숙제를 했다’는 즉, 동작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으며 (37)은 안나가 북경에 오기 전에 오리구이를 먹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32)와 (33)의 ‘不’는 주관의지나 바람을 부정하며, 동작 행위자의 의지 또는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인식을 포함한다. (34)~(37)의 ‘沒有’는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며, 동작의 발생, 진행, 완성 혹은 과거의 경험을 부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준도 ‘不’와 ‘沒有’를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2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간에 관계없이 객관적 서술을 부정할 때 ‘沒’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沒’는 미래 사건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객관적 사실은 ‘沒’를 사용해 부정할 수 있지만, 실제 언어 환경에서 일부 동사나 비동작동사는 객관적 성격의 행위, 사물을 ‘不’로 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38) 不打雷了, 咱們走吧。(번개가 치지 않으니 갑시다)
 (39) 傷口已經不流血了。(상처에서 이제 피가 나지 않는다)
 (40) 我不姓張, 我姓李。(나는 장 씨가 아니라 이 씨입니다)
 (41) 他不是北京人。(그는 북경사람이 아니다)

(38)과 (39)의 ‘不’가 부정하는 것은 주관의지 또는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동작 자체에 대한 부정이다. ‘不’는 ‘打雷’, ‘流血’ 앞에 와서 동작 자체인 자연계의 운동을 부정하거나 어떤 자연 현상¹⁰⁾이 어떤 시점에서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객관적 현상을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白堊(2000)은 이에 대해 일부 동사는 사람의 동작 행위가 아니라 자연현상을 나타내며, 이러한 동사들은 주관적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적 성격의 행위와 사물을 나타내지만 ‘不’로 부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객관 규율이나 현상의 부정은 사람의 주관 의지의 부정이나 모종의 객관 평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자연계 현상에 대한 부정일뿐인 것이다¹¹⁾. 이는 객관적 현상은 ‘沒’로만 부정된다는 견해에 반하는 내용이며 중국어에서 이런 예외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不’는 자연계운동과 넓은 의미의 성질 상태를 부정할 수 있으며, 현재, 미래, 과거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不下雨了”와 “沒下雨”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계 현상에 대해서도 ‘不’와 ‘沒’로 모두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 또한 주관의지와 객관적 서술이란 설명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실현과 비실현이라는 시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0)과 (41)

10) ‘流血’는 생리 또는 물리적 현상으로 자연 현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1) 吳艷(2005)은 이러한 종류의 문장에 대해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주관적 부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을 보면, ‘姓’, ‘是’와 같은 비동작동사 앞에 오는 ‘不’ 역시 주관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38)~(41)과 같은 유형의 문장을 주관, 객관의 기준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언어 환경에서 ‘不’는 주관의지 또는 주관적 평가를 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주관 의지와 객관적 사실이라는 기준으로 ‘不’와 ‘沒’의 차이를 논하기에는 예외 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不’와 ‘沒’의 용법 차이를 교학 할 때 위의 두 가지 기준이 모두 포함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은 될 수 없다. 결국 하나 또는 두 가지 기준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예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不’와 ‘沒’의 의미 분석에서 도출한 의미특징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교학을 진행하여야 한다.

IV. ‘不’와 ‘沒’의 교수 학습 방안

‘不’와 ‘沒’에 대한 교학 목적은 실용적인 어법 규칙을 가르쳐 숙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법 규칙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고 조합하여 정확한 문장을 만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어법 교학은 학생이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고 어법 규칙을 경험성분¹²⁾으로 대뇌에 저장하게 하는 입력 과정과 의사소통 시 온전한 구조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출력 과정을 반복적으로 연습시켜야만 완전한 교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어법 항목에 대한 교사의 강의만으로 어법 교학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어법 강의는 어법 교학 단계 중 시작 부분에 해당될 뿐이다. ‘不’와 ‘沒’에 대한 교학 단계는 5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1단계는 ‘不’와 ‘沒’의 오류를 예측하거나 학습자의 오류 유형 분석을 진행한다. 2단계는 오류 분석을 통해 교학 방법을 확립해야 한다. 3단계는 간단명료하고 구체적이며 실용적으로 어법 내용을 강의해야 한다. 4단계는 부정문의 여러 유형을 다양한 각도에서 연습시켜야 한다. 5단계에서 교사는 교학 내용을 테스트하고 평가한다. 이상의 5단계 중 1단계

12) 경험성분(經驗成分)이란 어휘, 어법 규칙, 문화 요소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경험성분이 많을수록 사유 속도가 빠르고, 이해와 표현의 정확도가 상승한다. 경험성분의 저장 양과 사유속도, 이해와 표현의 정확도는 비례한다(楊惠元: 2009).

와 2단계는 수업 전에 교사가 준비하는 과정이며, 교학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다. 3단계와 4단계는 교실 수업에서 진행된다. 5단계는 교실 수업에서 간단하게 진행하거나 수업 후 과제로 부여할 수 있다. 본고는 교실 수업 중심으로 이상의 5단계 기본 교학 단계를 오류 예측 분석, 교학 목적과 교학 방법, 교학 단계와 내용으로 나누어 '不'와 '沒'에 대한 교학 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1. 학습자의 오류 예측¹³⁾ 및 분석

맞춤성, 실용성이라는 교학 어법 원칙¹⁴⁾에 따라 교사는 '不'와 '沒'에 대한 오류 예측을 하거나 실제 오류 유형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不'와 '沒'를 잘못 사용한 용례는 교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예측하거나 오류 분석 관련 논문을 참조하여 분석할 수 있다. 다음은 '不'와 '沒'를 잘못 사용한 예¹⁵⁾이다.

- (42) *昨天我身体不舒服, 只好沒上課。(어제 나는 몸이 불편해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 (43) *來中國以前, 他沒有會說漢語。(중국에 오기 전에 그는 중국어를 할 줄 몰랐다)
- (44) *剛來中國時, 我連自己的名字都沒知道怎麼念。(중국에 막 도착했을 때 난 자신의 이름도 어떻게 읽는 줄 몰랐다)
- (45) *我剛到西安時, 一個人也沒認識。(시간에 막 도착했을 때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42)는 '昨天'라는 시간사로 인해 학습자는 과거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上課' 앞

- 13) 학습자 오류는 실제 교실에서 학생의 오류 내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가리킨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일부 학생 군에 대한 오류 분석에 불과하다. 오류 조사 결과와 교학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오류의 유형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오류 예측이라고 명명하였다
- 14) 중국어 교학은 학습대상, 모국어와 비교되는 중국어 특징, 외국어 습득에서 지켜야 하는 일반 규칙에 근거해서 어법체계, 교학내용, 교학 방법을 확정해야 한다. 외국어 교학에서 지켜야 하는 교학 원칙은 일반적인 8가지를 들 수 있다. 실용성, 맞춤성, 복식(複式)상승, 세밀화, 간략화, 비교, 해석, 연습 등이 기본 원칙이다(盧福波: 2010).
- 15) 실제 수업 현장에서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오류를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白荃(2000)의 예문을 인용하였다.

에 부정부사 '沒'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였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사건은 주어의 주관적 의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沒'가 아닌 '不'를 사용해야 한다. (43)은 학습자가 "할 줄 몰랐다"는 것을 과거 사건으로 이해하고 '會' 앞에 부정 부사 '沒'를 사용한 예이다. 그러나 조동사는 몇 가지 경우¹⁶⁾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不'로 부정하기 때문에 '沒'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44)와 (45)의 경우도 학습자는 과거 사건으로 이해하고 '沒'를 사용하고 있지만 '知道'나 '認識' 같은 심리 동사는 '不'로 부정된다. 위의 오류 유형이 발생한 원인은 동사의 성질이나 주어나 화자의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시제만을 기준으로 '不'와 '沒'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학습자 오류 분석을 통해 시제 이외에도 주관 의지와 객관적 서술, 조동사와 결합하는 경우, 심리동사와 결합하는 경우, 동사가 시태표지를 동반하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와 초급 중국어회화 수업 특성상 '不'와 '沒'에 대한 여러 가지 용법을 종합적으로 교학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항목이 나올 때 마다 이전에 배운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그 차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해야 한다. 중국어회화 수업에서 어법 교학은 종합식 이론 교육이 아닌 단계별 누적 교육이 될 수 있게 진행해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2. 교학 목적과 교학 방법

앞 절의 학습자 오류 예측과 분석을 통해 시제, 주관 의지, 조동사와 결합, 심리동사와 결합 등에 대한 이해 부족이 오류 발생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류 원인에 근거해서 '不'와 '沒'의 교학 목적과 방법을 다음과 같이 확정할 수 있다.

1) 교학 목적

① 학습자가 중국어 부정문의 구조를 파악하게 한다.

주어 + 부정 부사(不 또는 沒) + 술어(동사 또는 형용사)

16) '不'는 모든 조동사 앞에 올 수 있지만, '沒'는 能, 能够, 要, 肯, 敢 등 몇몇 조동사 앞에만 올 수 있다(呂叔湘: 1980).

- ② 학습자가 '不'와 결합하는 술어와 의미 특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게 한다.
- ③ 학습자가 '没'와 결합하는 술어와 의미 특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게 한다.
- ④ 학습자가 실제 언어 상황에서 정확하게 부정문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2) 교학 방법

- ① 그림 또는 사진을 이용해 언어 상황을 만들고, 간단한 문답 형식으로 부정문의 기본 문형을 제시한다.
- ② '不'와 '没'의 용법상 차이를 명확하고 간략하게 설명한다.
- ③ '不'와 '没'의 용법상 차이가 발생하는 문장을 기계적으로 연습시키면서, 연습을 통해 용법 차이를 이해하게 한다.
- ④ 실제 언어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자가 정확하게 부정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회화연습을 진행한다.

3. 교학 단계와 교학 내용

기초·초급중국어 회화 수업의 어법 교학에서 강의식 설명은 간결하게 진행하고 기계식 연습을 늘려 연습을 통해 어법 규칙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계적인 연습을 통해 반복적으로 대뇌를 자극하게 되면 정보가 누적되고 규칙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교실에서 '不'와 '没'에 대한 교학 단계는 3단계¹⁷⁾로 나눈다. 1단계는 문형 도입 단계로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여 상황을 설정하거나 복습을 통해서 부정문 형식을 제시한다. 문답형식으로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부정문 용법에 대한 강의를 교사가 주도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기계적 연습 단계이다. 1단계에서 학습된 내용 중 난이도가 낮은 용법에서 어려운 용법 순서로 반복적 연습을 진행한다. 이 단계는 학습자의 말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학습효과가 높아진다. 3단계는 회화 연습 단계이다. 2단계 연습이 부정문의 용법 차이에 대한 단순 연습이었다면, 회화 연습 단계에서는 실제 정황을 설정하여 학생들이 서로 묻고

17) 양혜원(2009)은 말하기 문장 연습 방법으로 문형제시-기계적 연습-교제 연습의 순서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부정문을 연습시키는 방법으로 이 순서를 도입하여 적용하였다.

대답하는 연습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될 수 있으면 간섭을 적게 하고 학생이 주도하게 해야 한다. 회화 연습 단계에서 교사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류는 바로 지적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오류에 대해서만 바로 교정해 주는 것이 좋다. '不'와 '沒'에 대한 구체적인 교학 단계와 내용을 설계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형 도입(제시) 단계

새로운 어법 항목을 교학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에게 문형을 제시해야 한다. 문형을 도입하는 방법은 여러 유형¹⁸⁾이 있지만 '不'와 '沒'의 경우는 먼저 부정문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해야 한다. 상황을 설정하는 방법은 사진, 그림을 제시하거나 복습을 통해서 문형을 제시할 수 있다.

(천안문을 가고자 하는 상황의 그림이나 사진을 제시한다)

교사 : 他去學校嗎? (그는 학교에 갑니까?)

학생 : 他不去學校。(그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교사 : 他去學校了嗎? (그는 학교에 갔습니까?)

학생 : 他沒去學校。(그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문답을 진행하면서 용법을 정리하고, 칠판에 판서하여 학생들이 '不'와 '沒'의 기본적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한다. 기본 구조를 익힌 다음 새로운 용법을 제시하고자 하면 복습하는 방식으로 문형을 제시할 수 있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그림을 제시한다)

교사 : 昨天他上班了沒有?(어제 그는 출근했습니까?)

학생 : 昨天他沒上班。(어제 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교사 : 昨天他爲什麼不上班?(어제 그는 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18) 문형 도입 방법은 사물, 사진 또는 그림, 동작, 상황설정, 배운 단원 복습, 새로운 단어 등을 사용하여 문형을 제시할 수 있다.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문장의 부정은 '沒'을 사용한다고 학습한 학생들에게 교사가 "昨天他上班了沒有?"라고 질문하면 학생은 "昨天他沒上班。"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복습을 통해 기본 문형이 제시되면, 교사는 '沒'을 '不'로 교체해서 새로운 문장을 제시한다. 새로운 문장을 제시한 후에 주어와 몸이 아파서 자신의 의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낼 때는 과거를 나타내는 '昨天'이라는 시간사가 있더라도 '不'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의한다. 강의를 후에 다시 한 번 모방해서 읽게 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용법이 출현할 때마다 복습을 통해 문형을 제시하고 용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기초와 초급 과정에서 '不'와 '沒'의 용법 차이를 점진적으로 자세하고 정확하게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기계적 연습 단계

기계적 연습¹⁹⁾이란 학습된 어법 규칙을 유형별로 반복적으로 대량 연습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는 그림이나 사진에 담겨진 상황을 보고²⁰⁾ 교사의 지도하에 문장 연습을 진행한다. 기계적 연습은 모방 연습²¹⁾ 위주로 한다. 학습자는 문장을 모방하는 연습을 통해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하게 된다. 모방의 기본 연습은 '4단계 연습법²²⁾'을 사용할 수 있다.

-
- 19) 기계적인 연습은 일반적인 모방 연습, 항목별 모방 연습, 교체 연습, 문형 변환 연습, 확장 연습, 문답연습, 게임 등이 있다. 기초와 초급중국어 회화 과목은 일반적인 모방 연습, 교체 연습 위주로 진행한다. 부정문 교학은 일반 모방 연습,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변환하는 문형 변환 연습, 문답 연습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20) 사진이나 그림으로 상황을 설정하는 것은 교사의 준비가 필요하다. 교사가 교실에서 바로 상황 설정을 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문형 연습을 할 수도 있다.
 - 21) 모방 연습은 일반적 모방 연습과 항목별 모방연습이 있다. 일반적 모방 연습은 종합적 모방으로 발음, 성조, 말의 속도, 악센트, 휴지 등 각 방면의 모방으로 정확하고 표준적이며 자연스러워야 한다. 기초, 초급 단계는 일반적 모방 연습을 많이 활용하고 중급 이상 단계에서는 항목별 모방 연습이 사용된다.
 - 22) '4단계 연습법'에서 1단계는 교사가 시범, 문제 제시, 지시를 내리는 단계이다. 2단계는 학습자가 모방(따라 하기)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교사가 다시 시범을 보이는 단계로 2단계의 학습자 활동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정확한 답을 제시한다. 4단계는 교사의 시범을 다시 모방하는 단계이다. 1단계와 3단계는 교사의 활동 단계이며, 2단계와 4단계는 학생 활동 단계이다. 2단계에서 학생A가 모방하면 4단계는 전체 학생이 모방하

(천안문을 가고자 하는 상황의 그림이나 사진을 제시한다)

교사 : 他去長城嗎? (그는 만리장성에 갑니까)

학생A : 他不去長城。(그는 만리장성에 가지 않습니다)

교사 : 他去長城嗎? (그는 만리장성에 갑니까?)

전체학생 : 他不去長城。(그는 만리장성에 가지 않습니다)

만약 교사의 질문에 학생A가 잘못된 대답을 하게 되면 교사는 교정을 해 주고, 다시 질문을 한다. 학생A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 그 다음 단계인 전체 학생에게 질문하고 학생들이 답하게 한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입력(듣고)하고, 반복적으로 출력(말하기)하면서 학습자는 문장 구조를 익히게 된다. 입력과 출력을 반복하면서 어법 규칙은 경험성분으로 대뇌에게 저장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난이도를 점점 올리면서 연습을 진행하면 학습자는 ‘不’와 ‘沒’의 용법을 단계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1〉

교사 : 你認識他嗎? (당신은 그를 알아요?)

학생A : 我不認識他。(저는 그를 모릅니다)

교사 : 你認識他嗎? (당신은 그를 알아요?)

전체학생 : 我不認識他。(저는 그를 모릅니다)

〈예시2〉

교사 : 你想過這個問題嗎?(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학생A : 我沒想過這個問題。(나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교사 : 你想過這個問題嗎?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전체학생 : 我沒想過這個問題。(나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예시1〉에서는 ‘認識’와 같은 심리 동사는 일반적으로 ‘不’로 부정한다는 것을 연습시킨다. ‘認識’외에 ‘喜歡’, ‘知道’ 등의 단어를 교체하여 연습을 하면 효과적이다. 〈예시2〉에서는 심리동사가 ‘過’를 동반하면 ‘沒’로 부정해야 된다는 것을 연습한다. 〈예시1〉과 〈예시2〉를 모두 학습한 상태라면 두 문장을 반복 연습하면서 용법의 차

고, 2단계에서 전체학생이 모방하면 4단계는 학생A가 모방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楊惠元: 2009).

이를 익히게 한다. 4단계 연습법은 지루할 수 있는 기계적 반복 연습 시간을 활기 차게 하고, 첫 질문을 받은 학생A는 교사의 질문을 듣고 난 후 빠르게 반응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이런 연습 방법은 개별 연습과 전체 연습을 병행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장 연습은 난이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진행해야 학생들의 심리적 긴장도를 낮추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3) 회화 연습 단계

회화 연습²³⁾은 이전에 학습되고 연습된 문형을 활용하는 단계로 실제 의사소통에서 부정문을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한 모의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不’와 ‘沒’의 기초 용법을 교학 하는 단계에서는 간단한 간접문답법으로 회화 연습을 진행하고, ‘不’와 ‘沒’에 대한 교학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문답법으로 연습을 진행한다. 간접 문답법으로 회화 연습을 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예시1〉

교사 : 他去長城嗎?
 학생A : 你去長城嗎?
 학생B : 我不去長城。
 학생A : (교사에게) 他不去長城。

〈예시2〉

교사 : 他認識金老師嗎?
 학생A : 你認識金老師嗎?
 학생B : 我不認識金老師。
 학생A : (교사에게) 他不認識金老師。

교사가 학생A에게 학생B를 가리키며 “他去長城嗎?”라고 질문하면, 학생A는 학

23) 회화 연습은 단항(單項)연습에서 시작하여 완전 통제 연습, 부분 통제 연습, 자유 회화 연습의 순서로 진행한다. 어법 구조를 익히기 위한 회화 연습은 단항 연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楊惠元: 2009).

생B에게 “你去長城嗎?”라고 질문하고, 학생B가 “我不去長城。”이라고 대답하면, 학생A는 교사에게 “他不去長城。”이라고 말한다. 학생A는 교사의 질문을 학생B에게 다시 질문하고, 학생B의 대답을 다시 교사에게 전하면서 회화 연습을 하게 된다.

상호 문답법은 소위 말하는 조별 연습을 가리킨다.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실제 언어 상황을 설정하여 부정문을 연습하는 방법이다. 연습 종료 후 연습내용을 조별 발표하게 하고, 교사는 연습 결과를 듣고 오류에 대해 교정을 가하는 것으로 연습이 완성된다. ‘不’와 ‘沒’의 차이에 대한 상호 문답법은 게임을 활용할 수도 있다. 게임을 활용하여 연습하는 방법은 수업 전 교사의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① 준비 단계

교사는 수업 전에 질문 카드와 대답 카드를 준비한다.

질문 카드	대답 카드
你去商店嗎?	我不去商店。
你買漢語書了沒有?	我沒買漢語書。
他胖嗎?	他不胖。
他胖了嗎?	他沒胖。
他變了嗎?	他一點兒也沒變。
你是中國人嗎?	我不是中國人。
他姓張嗎?	他不姓張, 他姓李。
今天下雨嗎?	今天不下雨。
昨天下雨了嗎?	昨天沒下雨。
門開着沒有?	門沒開着。
你吃過烤鴨嗎?	我沒吃過烤鴨。
你在看電視嗎?	我沒在看電視, 在學習呢。

② 게임²⁴⁾ 단계

교사는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학생당 한 장의 카드를 나누어 준다. A그룹에는 질문 카드(의문문)를, B그룹에는 대답카드(부정문)를 배포한다. 모든 학생은 자신의 카드만 볼 수 있고, 2분의 제한 시간 안에 암기하게 한 다음 카드를 책상 위에 덮어 놓게 한다. 질문 카드를 가진 학생은 순서대로 암기된 내용을 묻고, 질

24) 楊惠元(2009)의 말하기 문장 연습에서 소개된 게임을 부정 부사 교학에 활용해 보았다.

문에 해당되는 대답카드를 가진 학생이 바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만약 틀린 답안을 말했다면 교사는 옆에서 교정하고 지도한다. 모든 학생의 질문과 대답이 끝나면 교사는 질문카드와 대답카드를 한 번씩 따라 읽게 한다. 게임이 끝나면 그룹을 바꾸어 다시 진행한다. 그룹별 연습이 완료되면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 질문카드와 대답카드에 있던 내용을 활용하여 회화 연습을 진행하게 한다. 회화 연습이 완료되면 학습자는 '不'와 '沒'의 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게임을 활용한 상호문답법은 '不'와 '沒'의 용법을 숙달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반 전체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듣기 연습과 말하기 연습을 병행할 수 있다. 회화 연습 단계는 위의 두 가지 연습 방법 외에도 교사가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원어민 학생의 참여로 진행할 수도 있고, 역할극을 할 수도 있다. 교사의 재량으로 교학 목적에 맞는 연습으로 진행해야 한다.

V. 結語

'不'와 '沒'는 현대중국어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부정부사이다. '不'와 '沒'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적지 않지만, 두 부정 부사의 용법 차이에 대한 교학과 학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자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어법 항목 중의 하나이다. 본고는 부정 부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不'와 '沒'의 의미 특징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용 조건을 개괄하였다.

첫째, 사람 또는 사물의 상태 또는 성질을 부정할 때 '不'를 사용한다.

둘째, 주관적 결정, 판단, 단정을 부정할 때 '不'를 사용한다.

셋째, 습관적, 규율적 상황을 부정할 때 '不'를 사용한다.

넷째, 과거 또는 말하는 시점까지의 동작 발생을 부정하거나 상태 변화를 부정할 때 '沒'를 사용한다.

다섯째, 동사가 시태를 나타내는 '着', '過', '正在' 등을 동반하는 경우 '沒'를 사용하여 부정한다.

여섯째, 심리활동, 바람, 가능 등을 부정할 때 '不'를 사용한다.

부정 부사와 술어의 결합 관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이지만 여전히 모든 문장에서 완벽하게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심리활동을 나타내는 동사는 대부분의 경우 ‘不’로 부정하지만, 심리동사 뒤에 결과보어나 ‘過’가 오면 ‘沒’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기존의 많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不’와 ‘沒’의 교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不’와 ‘沒’의 용법 차이에 대해 기존의 교학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교재에서 시제의 차이 또는 주관의지와 객관적 서술이라는 기준으로 ‘不’와 ‘沒’의 용법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 용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기에는 그 내용이 방대하다. 시제의 차이로 ‘不’와 ‘沒’를 구분하게 되면 과거 사건에 사용된 ‘不’에 대해 설명할 수 없으며, 주관 의지와 객관적 서술이라는 기준은 ‘不’가 객관적 서술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불안하다. 기존의 두 기준이 잘못된 개괄이라 할 수 없지만, 완전한 정의라고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원인으로 ‘不’와 ‘沒’에 대한 학습자 오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교학 관련 논문에서도 ‘不’와 ‘沒’를 ‘非實現’과 ‘實現’, ‘상태부정’과 ‘동태부정’, ‘단정성 부정’과 ‘과정성 부정’ 등으로 구분하려 시도하였으나, 이 또한 완벽한 기준이라 할 수 없다. 결국 ‘不’와 ‘沒’의 용법 차이에 대한 교학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누적하는 교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기초와 초급중국어 회화 수업의 어법 교학 성격과도 부합된다. ‘不’와 ‘沒’의 다양한 용법을 하나의 기준으로 구분하려는 노력 보다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교학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교학 방안은 먼저 ‘不’와 ‘沒’에 대한 오류 예측과 분석을 통해 교학 목적과 방법을 도출하였고, 교학 목적에 맞추어 교학단계와 내용을 설계하였다. 교실에서의 구체적인 교학 방법은 3단계로 나누어 설계하였다. 1단계는 문형 도입 단계로 그림 제시 또는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문답 형식으로 부정문 문형을 학생에게 제시한 후, ‘不’와 ‘沒’의 용법 차이에 대한 강의를 간단명료하게 진행한다. 2단계는 기계적 연습을 통해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 3단계는 모방연습을 통해 익힌 문형을 활용하는 회화 연습 단계이다. 이상의 3단계로 ‘不’와 ‘沒’에 대한 각 용법별 강의와 연습을 단계별로 진행한다. 각 용법의 교학 순서는 기초와 초급중국어 교재 목차에 따라 진행하여 누적식 어법 교학이 될 수 있게 한다. 본고는 기초와 초급중

국어 회화 수업의 어법 교학은 될 수 있으면 강의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고, 기계적 연습량을 늘려, 듣고 말하기 연습을 통해 문형을 익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연습 위주의 교학 방안을 설계하였다.

이상으로 ‘不’와 ‘沒’의 용법 차이에 대한 분석과 교실 수업 중심의 교학 방안 설계를 시도하였다. 기초 단계의 교학이라 중급 중국어 수업에서 적용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급 이상의 교학 방안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 논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 lee&thomson저, 박정구 외역, 《표준중국어문법》,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6.
 劉月華 외저, 김현철 외역, 《實用現代漢語語法》, 서울, 송신출판사, 2005.
 허성도, 《현대 중국어 어법의 이해》, 서울, 사람과 책, 2005.
 北京大學中文係1955, 1957級語言班編, 《現代漢語虛詞例釋》, 北京, 商務印書館, 1982.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1980.
 朱德熙,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1982.
 盧福波, 《漢語語法教學理論與方法》,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0.
 呂必松, 《漢語與漢語作為第二語言教學》,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0.
 楊惠元, 《課堂教學理論與實踐》,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7.
 楊惠元, 《對外漢語聽說教學十四講》,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9.
 王建勤, 《漢語作為第二語言的習得研究》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1997.
 白 荃, 〈‘不’、‘沒(有)’教學和研究上的吳區〉; 《語言教學與研究》2000년 3期.
 代 睿, 〈漢語否定標記‘不’和‘沒(有)’的語義分析及選擇〉; 《語言應用研究》2010. 5.
 戴耀晶, 〈試論現代漢語的否定範疇〉; 《語言教學與研究》2000년 3期.
 李鐵根, 〈“不”、“沒”的用法及所受的時間制約〉; 《漢語學習》2003년 2期.
 李 瑛, 〈“不”的否定意義〉; 《語言教學與研究》1992년 2期.
 李 英, 〈“不/沒+V”的習得情況考察〉; 《漢語學習》2004년 5期.
 聶仁發, 〈否定詞‘不’與‘沒有’的語義特徵及其時間意義〉; 《漢語學習》2001년 1期.
 王 欣, 〈不和沒(有)的認知語義分析〉; 《語言教學與研究》2007년 4期.
 吳 艷, 〈‘不’與‘沒(有)’的比較研究〉; 《渝西學院學報》2005년 4권 6기.

【中文提要】

否定副詞‘不’和‘沒’在對外漢語教學中，一直是教學的難點。一些漢語教材和有關論文中關於‘不’和‘沒’的意義、用法以及二者的區別的說明也存在着問題。所以學生在使用這兩個否定副詞時出錯的比較多。本文對‘不’和‘沒’的語意進行了分析，討論了‘不’和‘沒’的意義及區別，通過分析，可以概括出對‘不’和‘沒’意義和用法的區別的認識。由此延伸探討一些關於漢語教學法中否定副詞的教學模式，以期幫助漢語否定副詞的教學。

【主題語】

不，沒，主觀否定，客觀敘述，靜態否定，動態否定

투고일: 2012. 7. 15 / 심사일: 2012. 7. 20~8. 5 / 게재확정일: 2012. 8. 10